

민중속에 자리한 '녹두장군' 형상화

송기숙 지음 「녹두장군」

동학농민운동 1백주년이 목전에 다가오는 이때, 동학에 관련된 다방면의 연구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에 걸맞춰 현재 7권이 간행되고 전10권 정도로 완간될 송기숙씨의 창편 「녹두장군」(창작과비평)은, 제목에서 암시하는 바와 같이 전봉준의 정치적 결단과 농민의 짐을 진 지도자로서의 인간적 고뇌를 민중속에 박혀 있는 한에서 건져올려 내고자 부심한 역작이다.

이 소설의 줄거리는 1892년 동학도 순화중이 선운사 미륵불에서 비결을 꺼내는 것으로부터 그후 3년 동안의 갑오농민 봉기까지의 과정을 다루고 있다. 작가는 이 소설에 들어가면서, 그 전쟁에 나선 농민들의 분노와 아우성, 익살과 청승을 낚아채 은은하게 들으면서 그들과 함께 호남벌판을 어울려 다니는 기분으로 소설을 집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평론가도 녹두장군은 전봉준의 운명만을 따라가는 박태원의 갑오농민전쟁을 능가하고 있다며 두레를 농촌 사회의 조직적 밑바탕으로 삼은 점이나 싸움과 놀이가 어우러지는 군중 묘사에서, 후천개벽사상의 자연스런 접목, 그리고 풍부한 현장의 방언구사와 풍자 및 해학에서 녹두장군은 이전의 어떤 역사소설과도 대별된다고 말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동학농민운동이라면 부패타락한 지배층이 민중들에 대한 유례없이 가혹한 착취와 억압을 일삼고, 외래 침략자들이 나라의 홀로서기를 엄중하게 위협하던 시기에 안팎의 억압자들을 반대하여 각지에서 벌어진 민중들의 항거가 1890년대에 들어와 마침내 대규모의 농민운동으로 발전하게 된 근대화 운동에 있어 획기적 사건이었다는 데 특징이 있다.

기실 현 7권까지는 전봉준보다 민중들의 다양한 행태의 삶에 더 정성을 붓고 있는데, 자신을 벌주는 내용의 사찰이란 걸 알면서도 주인의 명령이니 그대로 전달해줘야 한다고 우기는 중, 양반들 거동만 보면 배알이 뒤틀러 어떻게든 골탕을 먹이고야 마는 산적, 이름도 모르는 각종 세금에 땅이 꺼지도록 헌숨만 내쉬는 농민들이 그가 구현한 민중의 모습이다.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 “목구멍에 물들어가는 소리가 마른 눈에 물들어가는 소리였다”와 같은 비유법의 익살화, 당시 농촌 사회에서 협동조직체였던 두레에 관한 서술, 동지선달 설한풍이 몰아치는 삼례집회의 어두운 밤에 소리 장원과 이름 장원 뺨을 때의 해학과 청승,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말 어휘의 풍부한 개발

및 사용 등 수년동안 이 소설에 투자한 흔적을 작품 도처에 숨겨 놓고 있다.

아무튼 곧 완간될 나머지의 내용에서 수년간의 전적지 답사와 여러 차례의 수정·퇴고 과정을 거친 이 소설이 그 운동에 나선 농민들의 격정과 함성 그리고 해학을 깔고 민중 속에 자리한 “녹두장군”을 어떻게 형상화시킬지 궁급해진다.

최홍길

광주시 북구 중흥2동 336-8 · 회사원

「근현대 우리의 역사」

우리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해 이 땅의 젊은이들이 기울여야 할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리라고 생각된다. 이런 의미에서 「근현대 우리의 역사」는 우리의 근현대사에 대해 처음 접하거나, 여타의 책을 구독해 본 이들이라도 지루하지 않게 읽힐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된다.

이 책은 저자가 1988년에 「한국 근현대사의 이데올로기」(논장)라는 제목하에 필명으로 출판했던 것을 1991년에 개정·증보판으로 새롭게 본명을 사용하여 출판한 것이다. 이 책은 전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1장 조선말기, 제2장 식민지 시대, 제3장 해방공간으로 분류하여 그 당시에 일어난 민족적·민중적 여러 운동 형태의 성격과 그에 대한 평가를 설명·논술하고 있으며 결부분에서는 역사를, 그리고 오늘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자 하는 여러 원칙을 서술하고 있다.

저자가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왜 역사를 배우는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역사적 사실의 평가로부터 오늘의 현실을 정확히 규명하고, 아울러 현실 모순의 극복 방향을 실천적으로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조선 말기 이래의 근현대사는 우리 민족의 앞길을 밝히는 등불인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진지하게 근현대를 연구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수행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이 저자의 실천적 관점이다. 이 책은 따라서 역사적 사실의 전달보다 오히려 반외세 자주화 운동의 관점에 입각하여 역사의 인식 방법론과 사상 및 운동의 실천적 평가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파편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일상성 속에서 허우적거리거나, 매몰되지 않고 사회적·

역사적 존재로서의 ‘우리’를 인식하고 ‘우리’의 존재를 왜곡시키고, 굴절케 하는 다양한 형태의 외압에 대해 주체적으로 현실을 극복해낼 수 있는 민족적·대중적 관점을 견지해내는 데, 이 책이 독자들에게 일정하게 기여하리라 고 보여진다.

이승미

서울시 종로구 신영동 167-1 · 학원강사

고은 지음 「화엄경」

날은 더웠고 세월이 묻혀 있던 한 사고집단의 때죽음이 다시 살아나 세상을 휘저어놓고 있을 때 나는 휴가였다. 몸과 마음을 내어 어디라도 갈까 하다가 사람에게 부대껴 지쳐버리는 것이 아닐까 지레 겁먹고 들어 앉은 방에서 읽은 책이 고은 시인의 장편소설 「화엄경」(민음사)이었다.

이 책은 부처님의 설법초기에 나온 華嚴經의 마지막 장 ‘入法界品’을 기본소재로 하고 여기에 작가의 상상력을 가미하여 소설화한 것이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착한 소년 善財이다. 그는 참진리 곧 참 부처의 세계를 구현하기 위해 끝없는 여정을 계속하는 어린 나그네이다. 그는 때로는 맨발로 해골이 나뉘는 사막을 횡단하고 때로는 바다를 건너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저자로 들어가 사람들과 몸뚱이를 부딪히기도 하며 진리를 깨쳐나간다.

“내 삶이 길 위에 있을진대 / 내가 어느 스승을 찾으랴 / 길이 내 아버지, 길이 내 스승이 때 / 이 길 위에서 나고 죽어서 / 길이여 길이여 내 길이여”

오랜 여행 끝에 잠시 휴식을 취하며 한량없는 ‘자유’를 느끼는 善財의 이노래는 진리란 머무르지도 고여있지도 집을 짓지도 않는 길에서 길로 흐르는 것임을 절감하게 한다.

이러한 역정을 통해 그는 53명의 善知識(스승)을 만나게 되는데 그 스승에는 비구도 있지만 불법과는 상관없는 外道도 있고, 노예, 장사꾼, 뱃사공, 소녀와 창녀 그리고 신들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결국 진리는 특정한 데 있지않다는 ‘진리’를 가르쳐주는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진리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길에서 길로, 신으로부터 창녀에 이르기까지 견고 또 걸으며 찾고 또 찾아 햇빛과 함께 기

빠하고 구름과 함께 절망하기도 하며 善財가 얻은 진리는, 그래서 ‘꽃’이 된다. 이 세상이 그냥 그대로 가지가지 아름다운 꽃으로 치장된 佛國土이며, 모든 중생이 바로 그 꽃들자체라는 것이다. 이 소설은 꽃꽃 하나 날벌레 하나도 우주라는 거대하고, 아름다운 유기체를 이루는 소중한 존재하는 진리의 발견과정이 작가 스스로 후기에 밝혔듯이 “내 의식이 투영됨으로써 그때그때 나와 함께 달라지”는 합일은 이루면서 문장 자체가 살아서 호흡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저 스스로 살아서 굶어치고 휘몰아치고 벌떡 일어섰다가 고요히 가라앉기도 하는 이 소설의 행간을 따라 530여페이지를 다 읽었을 때, 나는 마치 오랜 여행에서 돌아와 거울 앞에 선듯한 기분이었다.

김희중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1동 144 · 회사원

「전예측 1990년대…」

「전예측 1990년대의 동경권」이 나왔다. 그 전에 나왔던 전예측 시리즈, 즉 「전예측 1990년대의 세계」를 읽었던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방식으로 세계첨단의 도시인 동경의 90년대의 여러 면을 예측하고 있다. 이 익숙한 방식이란 무엇인가? 다루는 주제는 정치, 경제, 사회, 지역, 환경, 산업 등 넓은 영역이지만 간결하고 짧게 핵심을 짚어나가는 방식이다. 일본 사람들의 책이 흔히 그렇듯이 이 책도 많은 문제를 알기 쉽도록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다.

이러한 정리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들이나 마음에 들었던 사람들이나 이 책은 다시 한번 볼 만한 책이다. ‘세계’ 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깔끔하기는 하나 체계적인 이론들이 없어 단편적인 사실과 단편적인 전망에 그치는 듯한 단점이 이 책에서는 큰 흠이 되지 않는다. 동경권이라고 하는 하나의 도시와 그 주변지역을 분석, 진단하고 전망하는 데에는 튼튼한 체계보다는 좀더 구체적인 사실과 그 사실의 배경에 대한 설명이 더 들을 만한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체계적이고 독창적인 논리와 적절한 사례가 잘 조화를 이룬다면 더 바랄 나위 없겠지만 말이다.

먼저 동경이 아니라 동경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데에 생각해볼 만한 거리가 있는 것 같다. 좁은 의미에서 동경권은 사이타마 현, 지바 현, 도쿄 도, 가나가와 현의 1도, 3현

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수도권은 1도 7현, 확대 수도권은 1도 17현의 넓은 범위다. 우리나라가 일본을 닮아간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도시의 팽창과 권역의 확대가 산업화 과정에서 어느정도 필연적이라는 의미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 이 책에서는 동경에서 300킬로미터권까지를 확대수도권으로 보면서, 이 300킬로미터권에 주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보다 면적이 적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전까지쯤 되는 개념으로 보아도 될 것 같다.

하지만 동경권의 확산과 팽창같은 양적인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계 제 1의 독신자가구의 증가, 교외권에서 새 명문고교의 탄생, 도로-철도의 상공 이용, 건물 개축의 급속한 증가, 여성 시장과 아동 시장의 증가, 24시간 도시화의 진행, 방법대책 등 동경의 변화과정은 서울뿐 아니라 많은 대도시의 미래상을 예측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시사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남영호

서울 성북구 정릉동 757-14

「맨하탄의 善神」

독일에서 방송극은 2차대전 이후 중요한 문학장르로 자리잡고 있다고 한다. 국내에서는 시인으로 더 잘 알려진 잉게보르크 바하만의 「맨하탄의 善神」(한국문연)은 그녀의 유일한 방송극 대본으로, 사랑을 주제로 한 고도의 상징성을 띤 작품이다.

우연히 만난 젊은 두 남녀가 사랑을 느껴 잠

시 함께 생활하지만 결국 여자의 죽음으로 끝난다는 단순한 줄거리이지만, 그 저변에 흐르는 바하만의 유토피즘과 언어와의 관계에 대한 정의는 일종의 섬뜩함마저 안겨준다.

언어에 대한 절망과 회의를 극복할 수 있는 진실한 언어에의 갈망이 바하만 문학의 핵심이라고 볼 때, 이 작품은 사랑을 매개로 한 인간의 언어의 부당함과 허위성을 극단적으로 몰고간 경우라고 볼 수 있겠다. 다시 말하면, 실현 불가능한 동경의 대상이며 현실 밖에 존재하는 유토피아를 남녀간의 사랑으로 환치·변형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작품 주인공인 안과 제니퍼는 그들이 실현하고자 하는 사랑의 절대적인 형태를 완성하지 못하고, 마침내 제니퍼가 혼자 호텔방에서 폭사한다. 두 사람은 거리를 배회하다 호텔에 투숙하게 되는데 되도록 높은층의 방을 요구한다. 비록 도시 한복판이긴 하지만 지상에서 멀어질수록 일상적인 사랑과는 다른, 그들이 원하는 형태의 새로운 사랑이 가능하리라는 기대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직접적으로는 사랑을 표현하는 새로운 언어, 나아가 자신들의 모든 사고를 담아낼 새로운 언어가 없이는 완전한 사랑이 불가능함을 깨닫는다. 기존 언어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불가능함을 이 작품은 암시한다. 이러한 암시는 작품 속에서 “출구를 찾고 계신가요?”와 “침묵하지요?”라는 맨 처음과 마지막 대사에서도 읽어낼 수 있다. 새롭고 유토피아적인 언어가 존재하지 않는 한, 또 다른 세상은 단지 침묵의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의 언어가 전달수단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사랑은 정신적이거나 관능적·감각적인 전달수단으로도 그

완전한 역할을 할 수 없는 추상적 개념이다.

그렇다면 바하만이 그려내고 있는 이러한 절망의 모습들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바하만의 언어에 대한 절망을 인간의 유한성과 사회적 규범 등 한계상황의 극복을 위한 몸짓으로 이해한다면, 새로운 사랑을 향한 시도는 새로운 세계나 새로운 언어라는 ‘절대적인 것’의 출발’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다소 생소하긴 하나 언어문제를 실존의 문제와 연결시켜 풀어내는 바하만의 독특한 문학은 신선한 지적 자극마저 준다.

안치숙

경기도 안산시 성포동 584번지 주공 APT. 주부

「사람아 아, 사람아」

“인생이란 얻는 것과 잃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은 누구도 얻는 것을 좋아하고 잃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나 잃는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때로는 잃지 않으면 얻을 수도 없는 법이다.”

「사람아 아, 사람아」에서 여주인공 손 유에가 소꿉친구이자 남편인, 그러나 다른여자와의 관계를 맺고 자신에게 이혼을 요구한 자오 쟈호안을 용서하며 쓴 편지의 한 구절이다. 너무나 단순하고 명쾌한 진리이건만 늘 잃는 것에 대한 조바심과 두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나에게 참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아니 「사람아 아, 사람아」를 읽는 얼마동안은 온통 그 묘한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우선 동양적 사회주의의 전형처럼 여겨지는 중국에서의 사랑과 우정, 이상과 신념이 어떤 운명을 겪어가는지, 어떠한 것이 무너지고 어떠한 것이 껌질을 깨고 자라나는지를 볼 수 있는 점이 그렇다. 더욱이 문화대혁명이라는 혁명적 격동기에 대학을 다녔던 등장인물들의 인생행로는 역사 흐름의 단면 단면을 그대로 대변해주는 듯하니 말이다.

사실 서점의 진열대에서 이 책을 뽑아 든 이유의 순전히 「감옥으로부터 사색」을 통해서 얻은 신영복씨에 대한 감동과 존경의 마음에 서였는데 그 기대는 역시 일치했다. 몇 년전에 「인간아아, 인간아」라는 제목으로 출간됐으나 전혀 독자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문장 곳곳에 스민 사람에 대한 애정의 흔적들이 「역시 신영복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했다.

요즘과 같은 사상적 대 혼란기에서 「사람아 아, 사람아」는 더욱 그 빛을 발한다. 적어도 역사의 도도한 흐름을 관통하는 불변의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휴머니티’라는 사실을 한껏 느낄 수 있으니 말이다.

신혜선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성지APT 105동 104호

각종 지류(紙類) 도매 소매

高麗紙業社

● 서적지 ● 모조지 ● 아트지 ● 엠보싱지 ● 레자크지

고려지업사는 단행본 출간에 필요한 모든 종이를 다량 확보하여 소량의 종이도 최선을 다해 보급해 드리는 데 업무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해마다 성수기가 되면 제지회사로부터 감수해야 했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덜고 대중문화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서적출판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다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 중구 수표동 47-6 전수빌딩 807호 전화 271-2581, 2 팩시밀리 269-8890

다물기획

표지디자인 · 본문디자인 · 출판광고디자인

“ 표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정성이 가득한 책을 만듭니다. ”

좋은 책은 알찬 내용과 창조적인 디자인과

독자와의 즐거운 만남입니다.

표지디자인 뿐만 아니라 본문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도

독자를 배려하는 정성이 넘칠 때

좋은 책이 주는 기쁨은 더욱 커집니다.

다물기획은 좋은 책과 보다 많은 독자가 만날 수 있는

길을 찾는, 재능있는 젊은이들이 모인 디자인 전문회사입니다.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10-83 전화 : 292/4546, 294/9639 Fax : 294/6443